산업통상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5. 11. 20.(목) 06:00 < 11.20.(목) 석간 > 배포 2025. 11. 19.(수)

산업 르네상스를 위한 기술혁신, 현장에서 돌파구 모색

- 산업기반실장, 산업 R&D 혁신 전문가 릴레이 간담회 -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는 기업·출연연·대학 등 현장에서 산업 R&D를 실제로 수행하는 전문가들과 매주 릴레이 '산업 R&D 혁신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는 김정관 장관이 산업 R&D 전문가들과 두 차례 조찬 간담회를 통해 밀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고, 문신학 차관 주재로 LG그룹 CTO들과 '산업기술 전략대화(11.6)'를 개최한데 이어,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지속적 노력의 일환이다.

산업부는 이를 통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혁신적·도전적 기술개발, ▲기술의 사업화·제품화 촉진, ▲산업기술 혁신 기업·인재 성장 지원 등을 논의하여 '산업 R&D 혁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 산업 R&D 혁신 전문가 간담회 개요 >

○ **일시/장소:** '25.11.20(목) 10:00~11:30 / 대한상의 8층 대회의실

○ **참석자**

- 산업부 산업기반실장 김성열(주재)
- 기 업 에이로봇 한재권 CTO(한양대 교수), 칸에스티엔 구본생 대표, 아모그린텍 송용설 CTO
- 전문가 명지대 김유빈 교수, 전자기술연구원 조진우 부원장, 화학연구원 최우진 본부장
- 지원기관 산업통상자원R&D전략기획단(OSP) 한종석 혁신정책MD, KIAT 전유덕 산업혁신본부장, KEIT 이강우 전략기획본부장

금번 간담회에는 에이로봇, 아모그린텍, 칸에스티엔 등 산업현장에서 R&D를 직접 수행하고 있는 기업, R&D 과정에서 기업과 밀접하게 협업하고 있는 정부출연연구기관, 산업기술정책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특히 한양대 연구실에서 스핀오프한 교수창업기업인 에이로봇의 한재권 CTO는 대학 R&D-사업화-기업R&D 등 기술개발 전주기를 겪은 관점에서 "최근 기술 상용화(Lab-to-Market) 주기가 급속히 단축되는 만큼, 사업화는 연구의 후속조치가 아니라 연구와 동시에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조진우 부원장은 “첨단기술 개발에 점점 더 막대한 비용이 수반되는 추세인 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파편화된 과제를 지양하고 대형화할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산업부 그랜드챌린지 위원*인 명지대 반도체공학부 김유빈 교수는 “정부-기업-대학의 공동 기반 기술·인프라(‘R&D 중립지대’)를 구축하고, 공급망 내 핵심 길목 기술에 대한 장기적 투자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 알키미스트/판기술 프로젝트(산업부 대표 도전혁신형 R&D)의 테마 발굴·선정을 위해 산학연 민간 권위자로 구성

간담회를 주재한 김성열 산업기반실장은 “국정과제인 산업 르네상스를 위한 신성장동력 발굴과 주력산업 혁신에 있어 핵심은 기술혁신”이라며 “산업부는 현장의 전문가들과 지속적인 토의를 통해 민간의 기술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벤처캐피털·기술거래기관 등이 참여하는 다음 간담회에서 기술사업화 촉진 및 기술금융 활성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며, 지역 R&D 혁신, 산업기술 인재양성 등에 대해서도 토론을 지속할 예정이다.

담당 부서	산업기술융합정책관 산업기술정책과	책임자	과 장	고상미	(044-203-4510)
		담당자	사무관	조문규	(044-203-451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